● 타운뉴스 칼럼

"굿모닝, 미스터 안!"

안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매일 아침 그는 거기 있었다. 아침 6시 30분에 가도 있었고, 7시 30분에 가도 있었다. 그렇다고 아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오전에도 있었고 오후에도 있었다. 근무하지 않는 날을 빼고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일찍 가는 날은 제복을 입지 않고 마켓 건물 주위를 돌며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근무 시간에는 제복을 입고 건물 주변을 서성이며 경계하고 있었다. 무엇을 하고 있던지 그는 언제나 웃는 낯으로 맞이해 주었다.

대부분 그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긴장감이나 공연히 죄지은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허리에 찬 권총도 무섭고 제복이 주는 위엄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썩 내키지 않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달라도 한참 달랐다. 언제나 웃는 낯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손을 흔들었고, 가까이 있을 때는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었다. 그 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느낌과 그가 주는 느낌은 아주 달랐다.

그는 타운뉴스 칼럼을 읽었다면서 '직원들은 뭐하고 어떻게 발행인이 직접 신문을 배달하냐' 고 말을 붙여오기도 했고, 나이를 물은 적도 있었다. 거리감 없이 구는 그에게 나도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물었다. 몇 시부터 근무인데 새벽부터 나오냐고.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어차피 출근할 거, 집에서 뒹구느니 일찌감치 출근해서 근무시간 전까지는 운동을 한다고.

만난 지 대여섯 달 쯤 지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며 '굿모닝, 미스터 안!' '굿모닝, 미스터 리!' 아침인사를 나누며 지내게 되었다. 근무 시작 전일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기도 했다.

처음에는 내게만 친절하고 붙임성 있게 말을 거는 줄 알았는데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고 상냥했다. 마켓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했다. 누구에게나 웃으며 상냥하게 말을 거는 그의 모습이 내게 친절하게 해준 것보다 더 보기 좋았다.

대화 중에 그가 뉴질랜드에 사는 친구 얘기를 했다. 가만히 듣다 보니 나의 고교 동창생 J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그를 아는가 물으니 친구라고 했다. 세상 참 좁다. 그가 나와 고3때 같은 반이었던 J의 친구라니. 그래서 더 가깝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나는 매일 아침 신문을 넣기 위해 들리는 마켓 타운뉴스 가판대 앞에서 그를 만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가 쉬는 날은 그를 볼 수 없어 섭섭했다.

한 달여 전 그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않게 되었다며 어쩌면 건너편 마켓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속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감원으로 그런가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가 물었다. 별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근무하는 경비업체가 퇴직할 때 준다면서 한 달 치 봉급을 홀드하고 있는데 한 달 치를 더 홀드하겠다고 해서 퇴직했노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경비회사로 옮기려 하는데 그 업체가 건너편 마켓을 관리하고 있어 가능하면 그곳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봉급을 한 달 치, 아니 두 달 치나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었으나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돌아올 답이 뻔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우선 그 직업의 특성상 근무 도중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생길 경우 회사가 그 부담을 하지 않고 해당 근무자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근무자가 함부로 그만 두지 못하게 하고,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한 얄팍한 방편으로 삼기 위한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드디어 그가 마지막 근무한다던 날, 그에게 그럼 내일부터 건너편 마켓에서 만나는 거냐고 물으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다. 아직까지 어느 곳에서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매일 아침 그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무척 서운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하던 마켓 주차장으로 들어서면 그의 모습이 떠올라 아직도 예전처럼 기분이 좋아진다. 차를 세우고 가판대를 향해 걸으면서 그가 어디선가 나타나 손을 흔들 것 같은 상상을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를 볼 수는 없어도 나는 매일 활짝 웃고 있는 그를 만난다. 그는 나를 보고 말한다. "오늘도 신문 배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chahn@townnewsus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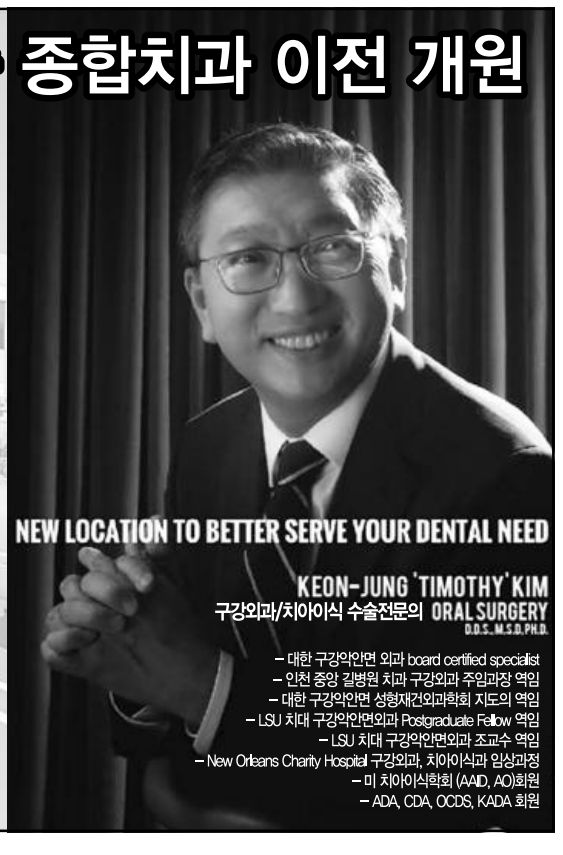
타운뉴스

제 1324호 목차

TownNews QR Code

타운뉴스 칼럼 11
커뮤니티 소식 13,14
IT · 과학 15,31
전문인 칼럼 16,39
법률 19
여행 21
나는야 1.5세 아줌마 23
지금 서울에서는 25
세상에 이런일이 26
함께 생각 29
부동산/경제 35
숨은그림 찾기,답/낱말 퀴즈,답 36,45
깔깔 38
한인업소 안내지도 40,42,52,54,56
요리 41
그림여행 43
연예 45,47
중고차, 안내광고 48,49
Domestic/ 주간운세 50
여성 53,55

가주장의사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TEL
대표: 정 영 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562)622-9393

타운뉴스® 배포지역
· 로스엔젤레스, 세리토스, 아테시아
· 가디나, 토랜스
· 하시엔다, 로랜하이츠, 다이아몬드 바 등 LA 동부
· 오렌지카운티 전지역
광고문의 714.530.1367
info@townnewsusa.com
www.townnewsusa.com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터스틴 김건중 종합치과 이전 개원
평생 치아 건강을 맡길수 있는
35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와의 만남...
일반 · 미용치과 전문
Jeon Hara, DDS, MS, Ph.D
Jeong Eun Kim, DDS
Soyoun Jenny Min, DDS
Maria Capiral, DDS
교정치과 전문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Medicare B plan
(PPO) provider
Health care(PPO) 취급하여
→ 뼈이식과 Implant 할인 혜택 가능
▪ 3차원 CT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 · 무출혈 · 무통 잇몸치료
New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949.679.6000 / (San Diego) 760.479.9876
www.timkimdental.com